"상업지역은 도시미래 견인·고용창출 기능해야"

광주시민단체 "고층아파트 우후죽순…건설업체 압박에 광주시가 굴복한 꼴" 간담회서 비판

광주시가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최고 40층에 이르는 주거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내 불균형 개발, 학교 등 기반시설 미흡,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상업지역의 각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 2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 CS 대표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는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상업기능이 거의 없는 기형적인 도시 관리, 높은 층수로 인한 위화감 조성, 조망 및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상업지역은 도시 미래를 견인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고용 창출, 도시 매력 증진, 시민·외부인의 유희공간 제공 등의 기능을 해야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내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건축물은 모두 36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층 미만은 18건, 20~30층 미만 5건, 30~40층 미만 10건, 40층 이상 3건 등이다. 2015년 이전에는 평균 13.6층이었으나 2016년 이후 평균 33층으로 2배 이상 높이가 상승하고, 평균세대수도 185세대에서 713세대로 급증하는 등 고층화, 규모화되고 있다.

이는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거시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뒤늦게 논의에 들어가 ▲오피스텔 비주거(상업)시설 면적에서 제외 ▲상업지역 내 비주거의무시설 비율 20% 이상으로 상향 ▲주거용의 경우 용적률 최대 400% 적용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가 반발하자 시는 개정안의 핵심인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제외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은 상업·업무·관광·쇼핑·유통·물류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시설의 공급이 아니다"며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을, 주거지역에 주거시설을 짓자는 원칙을 지키자는데 아파트 짓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건설업체의 압박에 시가 굴복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서남해안권 시장·군수와 상생간담회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목포시·해남군을 비롯한 9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장 명현관 해남군수)와 간담회를 열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오후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남도 민선7기 핵심 프로젝트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또 천사대교 개통을 앞두고 서남해안권 시·군의 역할과 공동 발전 방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3월께 정식 개통되는 천사대교를 통해 서남권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사대교는 국도 2호선 미개통 구간인 신안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교량이 개통되면 인근 자은·팔금·안좌까지 육로와 연결되는 종합 인프라가 구축돼 서남부지역의 지리적·경제적 가치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식 개통에 앞서 설 연휴를 맞아 2월 1~7일 임시 개통되는 천사대교에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사항을 비롯, 유기적인 관광 콘텐츠 연계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는 영광에서 시작해 여수, 부산까지 연결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서남권 주요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건설,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및 관광휴양거점 조성, 주변 연관산업 육성 등 융복합 전략을 통해 남해안 연안을 하나의 광역관광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문화재청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역사적 상징 공간을 지역 재생 핵심 축으로 조성해 침체된 도시 개발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는데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AI 차단 설 앞두고 방역 강화

전남도는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군·관계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명절 전·후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대국민 방역 협조와 농가 자율책임 방역을 유도하기로 했다.

설 전에는 주요 교통시설 이용 귀성객을 대상으로 AI 방역 관련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터미널과 마을 입구 등 귀성객에게 많이 노출되는 장소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국민 방역 협조 사항을 담은 홍보 전단을 배포한다. 철새 도래지와 축산시설 방문 자제 등 차단 방역 홍보를 강화하고, 설 명절 기간 방역 기관별(27곳)로 24시간 비상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설 연휴 전후인 31일과 2월7일에는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특별소독을 한다.

축산 밀집지역 철새 도래지 주변과 주요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소독한다.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엔 농협 공동방제단 99개단이 전담 지원 활동을 펼친다. 야생조류와 설치류 등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23일과 2월 13일 일제 살포하도록 했다.

전남도 종오리 전담공무원 41명과 시군 육용오리 전담공무원 198명이 매일 전화 예찰도 한다. AI 반복 발생 농가 앞에 설치한 방역초소 27곳도 계속 운영해 관계자 외 출입차단과 농장 주변 소독 등을 강화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북극 한파에…美 도로까지 '꽁꽁'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한파와 폭설이 미국 동부와 중부 지역을 강습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동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을 가로지르는 93번 고속도로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다. 북극 한파가 밀려오면서 보스턴의 경우 21일 영하 13도까지 내려가고 체감기온은 영하 24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시 빛고을장학재단·송원장학회 통합

시 출연금 10억으로 대폭 증액

광주시는 23일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빛고을장학재단과 (재)광주시송원장학회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장학기금을 더욱 늘리고, 1억원 수준이던 시 출연금도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이에 따라 (재)광주시송원장학회 해산을 추진한다.

빛고을장학재단은 지난 1981년 이후 광주시 출연금과 지역의 뜻있는 기업 및 인사들의 성금으로 4300여 명에게 3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 및 경기불황에 인한 기탁금 감소 등으로 장학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나마 지난해12월 (주)럭키산업 박흥석 회장 1억원, 지난 18일 대한기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최봉호) 1000만원 등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22일 OB맥주(광주공장장 김영태)가 15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을 통해 지역에 기반을 둔 더 많은 인재들이 장학혜택을 받고 지역 내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학기금 조성에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군공항 이전 정보 제공 홈피 운영

광주시는 2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전용 홈페이지(www2018.gwangju.go.kr/airforce)가 2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군공항이전사업 대상 지역민과 광주시민에게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절차, 이전부지 주변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계획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군공항이전 주요사업, 정보마당, 소통마당, 본부 소개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또한, '소통마당'에는 '자주하는 Q&A' 코너를 마련해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방식 등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쉽게 설명해준다.

광주시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광주와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도민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진의료원장에 정기호 전 영광군수 선임

제14대 강진의료원장에 정기호(64·사진) 전 영광군수가 선임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중부권 거점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강진의료원장 후보를 공개모집,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정 전 군수를 선임했다.

영광 출신인 정 신임 원장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은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영광기독병원장과 제7대 전남도의원, 민선 4·5기 영광군수, 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을 역임했다.

전남도는 정 원장이 20여 년 동안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성과 전남도의원, 민선 군수 등 풍부한 행정경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의료진 확보 등 강진의료원 경영 개선의 적임자로서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원장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환경 조성,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한 예방적 건강 증진 강화 등을 통해 의료원 이미지를 쇄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오는 28일 김영록 전남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아 2022년 1월 27일까지 3년간 강진의료원 운영 책임을 맡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